

# 코로나에 막힌 '결혼 수요' 한꺼번에 터졌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혼인 건수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된 데다, 이른바 '2차 예코보 세대'가 본격적인 혼인 연령대에 진입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국가데이터가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전남의 혼인 건수는 5983건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2022년 4000건대(4901건·4902건)까지 급감했던 혼인 건수는 2023년 5169건, 2024년 5688건을 거치며 반등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6632건), 2019년(6297건)과 비교해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흐름이다.

조혼인율 역시 회복세가 뚜렷하다. 인

## 광주 5983건·전남 7307건...팬데믹 이전 수준 근접 30대 초·중반 인구 효과 영향도...이혼은 동반 감소

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 인율은 4.3건으로 전년(4.0건)보다 0.3건 상승하며 2019년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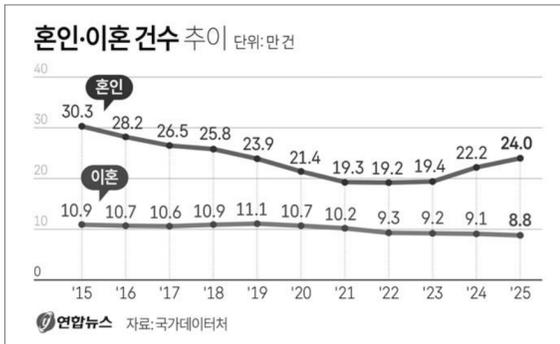
전남 역시 2018년 7587건에서 2019년 7413건으로 감소한 이후 팬데믹 기간 큰 폭으로 줄었지만, 최근 들어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조혼인율도 3.9건에서 4.1건으로 올라 2020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4건대를 회복했다.

혼인 증가의 배경에는 인구 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1991년생부터 1996년생까지 이르는 2차 예코보 세대가 30대 초·중반에 진입하면서 혼인 수요 자체가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시기 억눌렸던 결혼이 뒤늦게 집중된 영향이 더해진 것이다.

조혼 연령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광주의 평균 조혼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7세로 전년보다 각각 0.1세, 0.2세 높아졌다. 전남 역시 남성 33.7세, 여성 31.0세로 남녀 모두 0.2세 상승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감소세를 보였다. 광주는 413건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지만, 2023년 9.0%, 2024년 7.8%에서 점차



비율이 줄고 있다. 전남도 746건(10.2%)으로 여전히 비중은 높지만, 2023년 12.3%, 2024년 10.4%에서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반면 이혼은 줄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광주 2150건, 전남 3369건으로 전년 대

비 각각 4.8%, 3.0% 감소했다. 혼인 증가(10.2%)로 여전히 비중은 높지만, 2023년 12.3%, 2024년 10.4%에서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전국적으로도 혼인 증가세는 뚜렷하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건으로 전년보다 1만8000건(8.1%) 늘어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11년 연속 감소하던 혼인은 2023년 반등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남성은 1만2000건(13.5%), 여성은 1만1000건(13.2%) 각각 늘며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

평균 조혼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6세로 집계됐다. 남녀 간 격차는 2.2세로 역대 최소 수준까지 좁혀졌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세, 여성은 1.7세 각각 상승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700건으로 전년보다 0.3% 감소했다. 다만 일본과 라오스 등 일부 국가와의 혼인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 역시 일본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조혼인율은 전국 기준 4.7건으로 전년보다 0.4건 늘었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 해양에너지, ESG 경영 고도화...“지역과 함께 성장”

### 운영과정·실행과제 등 점검 사회공헌·안전관리 '투트랙'

㈜해양에너지가 ESG 경영 체계를 한층 강화하며 지역 기반 에너지 기업으로의 역할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해양에너지는 최근 광주 동구 I-PLEX 회의실에서 제19차 ESG위원회를 열고 올해 ESG 운영 방향과 주요 실행 과제를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위원회로, 연간 ESG 전략의 큰 틀을 확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ESG위원회 운영계획,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 WHSE 추진 계획, 회사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심의와 논의가 이뤄졌다.

단순 계획 점검을 넘어 ESG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방향성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정비



해양에너지는 최근 광주 동구 I-PLEX 회의실에서 제19차 ESG위원회를 열고 올해 ESG 운영 방향과 주요 실행 과제를 점검했다.

하기로 했다. 에너지, 사회복지, 교육장학, 탄소중립, 문화예술 등 5대 영역을 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안전·환경 부문에서는 WHSE(Workplace Health, Safety, Environment) 경영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변화관리 전략을 접목해 산업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해양에너지는 이를 통해 '사고 ZERO'를 목표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올해 첫 ESG위원회를 통해 운영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이라며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서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전남도, 바이오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 25~31일 바이오 스케일업 참여 모집...50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지역 바이오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통해 전남을 바이오산업의 핵심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남 바이오기업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남도가 지원하고 전남바이오효용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바이오기업 창업부터 성장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숙기업의 상장(IPO)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바이오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22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시제품 제작, 제품·공정 고도화, 마케팅, 시험·인증·임상, 지식재산권 확보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기업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창업기업은 창업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초기 사업화 지원, 도약기업은 제품 고도화, 공정 개선,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성숙기업은 IPO 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IR 프로그램 등을 집중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남바이오효

용원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 통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www.jeonnam.go.kr)와 전남바이오효용원 누리집(www.jbf.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은 천연물과 해양생물 등 풍부한 바이오소재와 화산백산산업특구, 전남바이오효용원, 화산전남대병원 등 연구·임상 인프라를 갖춘 바이오산업 최적지"라며 "이번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바이오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전남을 바이오산업의 핵심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전남 생달나무, 기능성 화장품으로 확장

### 원료 국산화 시동...19조 시장 K-뷰티 경쟁력 강화

전남 자생 산림자원인 생달나무가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상용화되며 '국산 원료 기반 K-뷰티'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도산림연구소는 19일 원도·진도 등 남부 지역에 자생하는 난대 수종 생달나무 정유를 활용해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을 갖춘 이중 기능성 화장품(안티에이

징 애플)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수입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생산 규모 19조 4000억원, 수출 15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성장세가 가파른 상황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특히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생물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원료 국산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성과는 생물 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산림연구소는 생달나무를 활용해 기존 고가 수입 향장 원료를 대체함으로써 외화 유출을 줄이고,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관련 바이오 기업 유치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자원을 산업화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농어촌공사, AI 기반 농업용 관리체계 구축

### 지하수 수급 상황 사전 예측...농업용수 안정성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저수지와 하천 등 지표수가 단기간에 고갈되는 '달발가뭄'이 잇따르면서,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사는 그동안 지표수 의존도가 높은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하수를 활용한 수자원 다변화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신규 지하수 개발은 적합 지역 탐사와 인허가 등 사전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긴급 상황 대응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기존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했다.

전국 4만여개 농업용 공공관정에서 수집된 이용량과 수위 데이터를 학습시켜, 지하수 수급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델이 정착되면 지하수의 부족량과 가용량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가뭄 발생 이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해진다. 현재 2차 연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인공 지능 고도화를 통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실증 과정을 거쳐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기존 관정의 성능 개선도 병행된다.

공사는 전국 511개 농어촌용수 구역을 대상으로 농업용 공공관정 정밀진단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시설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10개 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25개 지구씩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하수 확보 능력 자체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공사는 오는 2038년까지 전국 21개 시설농업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수 함양사업'을 진행해,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에 물을 보충함으로써 만성적인 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상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처장은 "공사는 과거 지하수개발공사와 합병된 지하수 전문기관"이라며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해 농업인이 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조현찬 기자 pose007@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농주농협과 함께 영남농산물물류센터에서 방울토마토 등 전남 우수 농산물을 영남권에 알리기 위한 동행 마케팅을 진행했다.

## 여수광양항만공사, 중동시대 비상대책반 운영

### 지하수 수급 상황 사전 예측...농업용수 안정성 강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중동 시대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해운·물류 공급망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수광양항 중동시대 대응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비상대책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비해, 여수광양항 물동량과 항만 배후 입관 및 업계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항학범 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중동 시대 장기화에 따른 해운 물류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수광양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만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광양항은 석유화학 제품 등 주요 화물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경유하는 구조여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

## 농협 전남본부-농주농협

### 영남권 동행마케팅 진행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농주농협과 함께 영남농산물물류센터에서 방울토마토 등 전남 우수 농산물을 영남권에 알리기 위한 동행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농주농협 방울토마토 공선출하회 소속 농가 16명이 참여했으며, 영남농산물물류센터와 반여공판장을 중심으로 대추방울토마토 시식 행사와 품평회를 진행했다.

양인영 농주농협 방울토마토 공선출하회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농산물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확부터 선별, 출하,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